

고금리·고물가에 고통을까지... 지역 경제 '3高 한파'

환율 1400원 근접...원자재 비용 상승·경기 하락에 수출은 막혀
10월 광주·전남 무역수지 7.9억 달러...전년 동월 대비 '반토막'

지역 경제계가 국내 경기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 등에 고통을이라는 또다른 암초를 만났다. 광주·전남은 원자재를 수입해 가공 혹은 조립 후 수출하는 시스템으로, 원자재의 경우 특히나 환율 변동에 민감한 탓에 당분간 지역 수출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글로벌 경기 하락에 이어 국내 소비 침체 속에 가뜩이나 매출 하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전남기업들이 달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원자재 비용이 상승하고, 수출은 막히는 현상을 겪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전남도, 금융기관, 유관기관 등의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오후 3시 30분 기준)은 전날 대비 6원60전 오른 1397원50전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당선 소식 이후 상승하기 시작해 지난 13일 1400원을 넘어선 뒤(1401원10전), 14일 1407원30전까지 치솟았다. 이후 1390원대에 머무는 등 사실상 1400원대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직전임에도 원·달러 환율이 치솟아, '강한 미국'을 표방하는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에 또다시 입성하게 되면 고통을·강달러 기조가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로 인해 지역 수출업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은 수출의존도가 높고, 갑작스런 고통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중소·영세기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환변동 보험에 가입했다면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지만, 지역 영세기업들의 경우 환변동 보험 가입률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남 산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석유화학업계도 당분간 고전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석유화학업계

는 원유를 수입해 가공처리 후 석유화학제품으로 바꿔 판매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고통을은 원자재(원유) 상승과 직접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원자재의 경우 환율 변동에 민감하다는 게 큰 문제점으로 꼽힌다. 선박과 화공품, 합성수지 등도 비슷하다. 가뜩이나 수요 부진과 저렴한 중국산에 고전하고 있는 전남지역 석유화학업계에는 먹구름이 드리운 셈이다.

광주의 경우 주로 프로세서, 컨트롤러, 인쇄회로 등 반도체 중간재를 수입하고 있으며, 최근 가격이 상승중에 있다.

21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발표한 '2024년 10월 광주·전남 수출입 동향'을 보면 광주와 전남은 무역수지 7.9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14.3억달러)의 절반 수준으로, 그만큼 높은 환율과 글로벌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달 광주의 수출은 전년 같은 달보다 12.7% 감소한 11.6억달러, 전남은 23.6% 줄어든 33.7억달러를 기록, 합계 21.1억달러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는 반도체 수출 감소가 8개월 연속 이어졌는데, 특히 감소율 26%를 기록, 이 기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밖에 냉장고와 자동차 부품 수출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석유제품 수출이 전년 같은 달보다 무려 43.7%가 줄어들면서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1%에서 30.2%로 줄었다. 산업계는 광주시와 전남도,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하남산업단지 관계자는 "지자체 지원책이 기업들의 경영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금리, 규제 등 다양한 부분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해남 들녘 가을배추 본격 출하

21일 해남 문내면의 한 배추밭에서 농민들이 수확에 한창이다. 배추 가격은 지난 10월 말 산지에서 포기당 1만원까지 폭등했으나 수입산 중국 배추가 늘면서 대폭 하락, 2000원대까지 떨어졌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전북, 무안공항 연계 호남권 관광 활성화에 힘 모은다

수도권 여행사 대상 '관광 설명회'

광주시·전남도·전북도가 내년부터 무안국제공항과 연계한 광역 관광상품을 개발·운영하고, 2025년 호남권 관광문화 주간도 공동 추진하는 등 호남권 관광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3개 시·도는 특히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혁신적인 관광 상품 개발 등도 이어가기로 했다.

광주·전남·전북관광재단은 지난 20일 서울 롯데 호텔에서 '2025 호남권 관광설명회'를 열고 200여 개의 수도권 여행업체들을 대상으로 내년에 선보일 호남 관광 상품, 프로그램들을 내놨다.

이 자리에서 각 재단은 호남권의 풍부한 관광 자원과 매력을 전국 관광 관계자들에게 소개하고 호

남권의 관광 발전 가능성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또 호남권의 주요 관광 자원을 영상으로 소개하고, 각 지역은 호남 고유의 문화와 역사, 자연경관을 중심으로 대표적인 관광지와 프로그램 통해 방문객에게 독창적이고 특별한 여행 경험을 선사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3개 시·도는 특히 이용객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무안국제공항과 연계하는 광역 관광상품을 개발·운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올 들어 지난해 말까지 무안공항을 이용한 여행객은 32만 345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만 2495명)보다 87.5%나 증가했다. 이는 전국 8개 국제공항 중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2면으로 계속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주말 영하권 강추위... 얼음 얼고 서리 내려

주말인 23일부터 광주·전남지역에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2일까지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유지하다 토요일인 23일 아침 기온이 5-10도 가량 떨어지겠다"고 21일 밝혔다.

22일 아침 최저기온은 5-10도·낮 최고기온은 12-15도에 분포하겠고, 23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5도, 24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8도 등 주말 사이 영하권 강추위가 나타나겠다.

기상청은 중국 북동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 영향으로 찬 기운을 머금은 공기가 광주·전남 지역으로 남하하면서 기온이 떨어

어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23일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얼음이 얼고 서리가 내릴 가능성이 높겠다.

다음주 25일부터 기온은 평년(최저 0-6도·최고 11-15)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으나, 저기압이 광주·전남 지역을 통과하면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22일 광주·전남지역에 초속 15m 안팎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바란다"고 당부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보행자 중심의 길,
함께 걷고 싶은 길,
대·자·보 도시 광주입니다

중교통 전거 행